



보도자료

담당부서 : 홍보기획관 홍보담당관	홍보담당관	김규리	2133-6405
사진 없음 <input type="checkbox"/> 사진 있음 <input checked="" type="checkbox"/> 쪽수 : 3쪽	홍보기획팀장	고경인	2133-6407

서울시, ‘2030 세계박람회’ 유치 염원 담은 응원 메시지 서울도심 장식한다

- 서울시, 27일 오후 7시부터 29일 새벽 1시까지 서울도서관 외벽 전면에 응원 문구 표출
- 22년 부산시와 업무협약 체결 이후, 공감대 형성 및 유치 필요성 적극 홍보해 와
- 오 시장,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위한 One team으로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 지원”

- ‘2030 세계박람회’ 개최지 발표를 하루 앞둔 지구 반대편 서울의 중심부가 우리 모두의 염원을 모은 성공기원 응원 메시지로 장식된다. 서울시는 27일(월) 오후 7시부터 서울도서관 외벽에 프로젝션 맵핑을 활용한 조명 투사 방식의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염원하는 응원 문구를 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일몰이 시작되는 27일(월) 오후 7시부터 개최지 최종 발표가 예상되는 29일(수) 새벽 1시 전후까지 서울도서관 외벽은 유치 자신감과 에너지를 북돋우는 활기찬 핑크빛 조명 아래 “World EXPO 2030 BUSAN,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서울시가 응원합니다”라는 메시지가 표출된다.

- 시는 프랑스 파리 국제박람회기구(BIE) 총회에서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는 유치팀에 서울시민도 끝까지 함께 지지하고 있다는 점을 알리고자 했다.
- 서울시는 지난 22년 10월 6일 서울시청에서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협력을 위한 서울특별시-부산광역시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고자 시의 홍보역량을 집중하며 엑스포 유치에 대한 시민 공감대 형성과 유치 필요성을 적극 홍보해 왔다.
- 특히, 지난 3월 국제박람회기구(BIE) 현지실사단 방한 기간에는 실사단 주요 방문지역을 중심으로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 보유 전 매체를 활용하여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영상을 표출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 사격을 해왔다. 그 결과, 실사단과 서울시민들이 시 청사 본관 외벽은 물론, 광화문, 강남, 여의도 등 주요 지역에서 생동감 있는 영상으로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홍보영상을 자주 접한 바 있다.
- 오세훈 시장은 지난 4월 부산에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2030 부산 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 민간이 한마음 한뜻으로 ‘One team’으로 뛰고 있는 만큼, 서울시도 박람회 유치 성공을 위해 가용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서 총력 지원해 왔다”며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와 성공적 개최를 통해 대한민국의 글로벌 위상이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 서울시와 서울시민의 간절한 염원이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환호성으로 응답되길 기대한다.

World EXPO 2030 BUSAN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서울시가 응원합니다

